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P 모건 원본 보고서는 회원사용입니다. 원하시는 회원사분은 office@kocham.org 또는 kenmin@kocham.org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

- WSJ: 1분기 미 경제 성장 둔화됐다

[보고서]

- JP 모건 보고서: 미·중 관계의 지정학적 진단

[미국 금융]

- WSJ: 은행 사태, 부채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
- CNN Business: First Republic, 망할 수도 있다
- WSJ: 애플의 새로운 저축 계좌 편리하나 마냥 좋은 건 아니다

[항공]

- Bloomberg: 비싼 항공권, 유지 될 수 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물류 회사 운영 일시 중단... 사이버 공격 탓
- CNN Business: 메타 주식 급등 “거의 1년만”
- CNBC: Barclays, 1분기 순이익 27% 증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GDP Report Shows Economic Growth Slowed in First Quarter 1분기 미 경제 성장 둔화

- 미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 1.1%로 둔화 됐다. 소비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와 금리 상승, 은행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 연방 상무부는 이번주 목요일에 4분기 성장률은 계절 조정치로 2.6% 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이나 작년 4분기 보다 둔화 된 것이다.
- 소비자 지출과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 연준이 경기를 냉각시키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WSJ 기사

[보고서]

JP 모건 보고서: Geopolitical Perspectives: Globalization 2.0: Neither deglobalization nor slo-balization

미·중 관계의 지정학적 진단

- 미국과 중국 양국간에 건전한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서로간의 오해나 우발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 관리들의 최근 움직임에서 중국으로부터 탈동조화를 하거나 중국 성장을 제한하려는 어조가 사라지고 있다.
- 그러나 국가 안보 검토의 중요성과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관계에 대한 가드레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좀 거시적인 데이터를 보면, 상호간에 디커플링(탈동조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서로간에 산업정책상의 경쟁을 강화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서구 동맹국들간의 금융상의 '우방간 쇼어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 서구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걸프만 국가들의 흑자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데)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중국의 새 체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혁신과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 중국의 경제 재개는 신흥국 자산에 대한 시장 집중도를 높이고 이들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 남미는 동맹국의 가까운 '니어 쇼어링'의 동맹국이자 파트너로서 좋은 혜택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제도적인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 되었다.
- 중요 광물에 대한 동맹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일부 주요 광물과 희토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 공급망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

WSJ: Banking Problems May Be Tip of Debt Iceberg

은행 사태, 부채 문제의 빙산의 일수 있어

- 요지: '새도 뱅크'(shadow banks"는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일반 은행 들처럼 고금리일 경우 리스크에 노출된다
- 이번 사태가 은행 업종 이외의 부문으로 퍼져나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한달러 DVB 사태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작동하고 있는 큰 세력의 증상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 SVB 사태의 핵심 문제는 그 은행이 불안정한 예금예금으로 모아진 정부 부채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갑작스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 부채의 시장 가치가 급락했고, 예금은 더 비싸져 버렸다. 많은 은행들도 유사하게 값어치가 떨어진 채권을 소유했는데 이는 단지 부채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다.
- 2009년 말 이래로 정부와 기업체, 가구가 진 총 부채는 90%가 더 많은 68 조 달러라는 것.(연준 자료)

- 그런데 작년 초 이래로 금리가 오르면서 기종 용자나 채권의 실제 가치가 내려가 버렸다. 대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손익 계산서에 대출금과 채권을 현재 시가 표시하지 않는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채권과 대출의 가치는 발행 당시보다 훨씬 낮아졌고, 누군가는 이러한 손실을 감당한다. "이는 시스템 어딘가에 나타날 것" 이라고 신현송 국제결제은행의 연구 책임자는 진단한다. 은행이든 '새도 은행(shadow banks)인 비은행이든 많은 부채를 보유하게 되어 동일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First Republic may not survive, even after two multibillion-dollar bailouts **First Republic, 망할 수도 있다**

- 이 은행이 존립 여부에 있다. 이 은행의 붕괴도 시간 문제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 Gordon Haskett측은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이 은행에 이번 주말 전에 또는 이번 주일에 개입할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 이 은행은 이번주 주식이 사상 최고로 떨어졌다. 거의 90%가 된다.

CNN Business 기사

WSJ: Apple's New Savings Account Is Convenient. Is That a Good Thing? **애플의 새로운 저축 계좌 편리하나 마냥 좋은 건 아니다**

- 애플의 새로운 저축 계좌는 신용 카드와 결합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원활한 돈 이체, 저축금으로 카드 내역 갚기 등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 또한 애플 캐시로 즉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애플 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이는 송금하는 데 1~5일이 걸리는 기존 온라인 저축 계좌와 비교된다.
- 하지만 지출과 저축을 동일한 앱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금융 고문들이 말했다. 저축보다는 지출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WSJ 기사

[항공]

Bloomberg: Why Airline Tickets Are Still So Expensive and Likely to Remain That Way **비싼 항공권, 유지 될 수 있다**

- 비행기 부족: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 수요가 낮았기 때문에 항공사는 많은 비행기를 '무가동' 상태로 전환했다. 이처럼 무가동된 비행기를 정비하는데 약 10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행기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 여행 수요 증가: 소비자들은 여행을 위해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을 못 갔기 때문이다. 2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더 관대해졌다.
- 직원 부족: 항공사는 팬데믹으로 약 2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수천만 명의 항공 일자리가 없어졌다. 현재 업계는 인력 충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높은 연료 가격: 원유는 2019년 1월보다 50% 이상 비싸다. 또한 연료가 단일 최고 비용이기 때문에 항공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 Cyberattack Forced a Logistics Company to Temporarily Halt Operations

물류 회사 운영 일시 중단... 사이버 공격 탓

- Expeditors International of Washington Inc는 작년 2월에 대부분의 운영 및 회계 시스템을 중단 했다. 해커들이 자사의 네트워크에 침투했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Expeditors 사건은 장비와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 게다가 이 사건 공개 직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브뤼지 항에 본사를 둔 회사들은 랜섬웨어에 감염 됐다. 몇 주 전에는 독일의 두 물류 회사가 해커들에게 당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Meta stock jumps after company reports first revenue growth in nearly a year

메타 주식 급등 "거의 1년만"

- 메타는 올해 1분기 동안 매출이 3% 증가했다고 이번주 수요일에 밝혔다. 게다가 매출 증가 보도 이후 주식이 12% 급등했다.
- 또한 사용자들이 최근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메타의 앱 제품군 활성화 사용자는 38억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5%, 페이스북 일일 활성화 사용자는 20억 명 이상으로 4% 증가했다.
- 하지만 이 회사의 이익은 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분의 1이 감소했다. 광고 가격도 전년 대비 17% 하락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Barclays posts 27% rise in net profit for the first quarter, beats expectations

Barclays, 1분기 순이익 27% 증가

- 목요일에 발표된 Barclays의 1분기 순이익이 27% 늘었다. Reuters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순이익은 14억 3200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 은행의 소비자·카드·결제 부문 소득은 47%, 법인·투자은행 부문은 1% 증가했다. Barclays UK의 소득은 19% 증가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퍼스트리퍼블릭 주가 또 30%↓...비트코인, 3만달러 회복 뒤 후퇴"

"타은행에 자산 매입 설득"...다른 지방은행 주가는 혼조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26일(현지시간) 계속되고 있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주식은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29.75% 하락한 5.69달러(7천613원)에 거래됐다.

전날 약 50% 폭락한 데 이어 다시 30% 급락한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